

오순절 후 다섯 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5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0년 7월 5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323장 “주께로 한 걸음씩” (새 532)	인도자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27번 시편 (Psalm) 121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장 “세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도 Prayer of Intercession 문일호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히브리서 (Hebrews) 10:19-25 박진선 집사

설 교 Sermon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김일선 목사
(Let Us Draw Near to God with Faith)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특송: 윤희준 집사, 반주: 김미경 집사)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새 338)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지만,

우리는 조급함으로 가족과 이웃을 기다려주지 못했고,

우리의 불안한 감정과 교만을 여과없이 드러냈으며,

하나님과 무관한 생각과 죄된 습성에 집착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더욱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매순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 1:19)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한글개역 히10:22)

“let us draw near to God with a sincere heart in full assurance of faith, having our hearts sprinkled to cleanse us from a guilty conscience and having our bodies washed with pure water.” (NIV Hebrews10:22)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7/5 (주일)	7/6 (월)	7/7 (화)	7/8 (수)	7/9 (목)	7/10 (금)	7/11 (토)
	수8	수9	수10	수11	수12,13	수14,15	수16,17
본문	시139 렘2	시140,141 렘3	시142,143 렘4	시144 렘5	시145 렘6	시146,147 렘7	시148 렘8
	마16	마17	마18	마19	마20	마21	마22

수/요/ 성경/공부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7/8수 오후730)	“나는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민 188-20)
토요 새벽기도회 (7/11토 오전630)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눅 11:4)

지난 주일(6/28) 말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엡 6:18-24)

기도는 모든 사역의 출발점이며 (또한) 모든 사역을 지속하게 하는 촉매 (연료)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저절로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주시는 힘과 은혜와 자혜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엡6:18)은 우리에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권면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1)첫째,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이고 (롬8:26-27), 2)둘째,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함께 연대하는 기도이며 (엡6:18-19), 3)셋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는 기도입니다 (빌4:6-7). 물론 우리 신앙과 삶에는 늘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과 시험도 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더욱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사귀를 더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